

강소농 육성 지원 전국 가족농 참여

올해 4000여 중·소규모...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서 본격 추진

영농 규모는 작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가 소규모를 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올해 전국 4000여 중·소규모 가족농이 참여한다. 강소농(強小農)이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라는 뜻으로 끊임없는 열정과 역량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중소 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22년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이 전국 도(道)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153개소에서 4,012농가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은 기초·전문·최고과정으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신규로 참여한 가족농을 대상으로 경영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최신 농업기술 도입, 경영기록장 작성, 세무, 농식품 인증관리, 상표출원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과정은 기초과정을 이수한 강소농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농장 경영환경 분석, 비즈니스 모델 적용, 단기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소비경향을 반영한 판촉(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최고과정은 지역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전문 과정 수료자 중 우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처음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박동섭 씨(경기 포천)는 "농작물 생산에 대한 기본적 기술은 있지만, 농장 경영관리와 농산물 유통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최미아 씨(전북 남원)는 "지난해 기초과정을 들으며 경영개선에 노력한 덕분에 농가소득이 약 20% 증대됐다"며 "올해는 새롭게 온라인마케팅을 시작하는 만큼 지속적·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본보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만5,000여 농가에서 시작해 지난해까지 육성한 전국적 강소농

수는 8만7,000여 농가에 이른다. 지난 10년 사이 5.8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물 생산에 대한 기본적 기술은 있지만, 농장 경영관리와 농산물 유통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 수는 108만 5,000 호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51헥타르로 작은 면적에서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는 형태의 농업구조"라며 "규모의 한계를 넘어 작은 영농 규모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전문지도(컨설팅)를 추진해 중소규모 가족농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배회감지기 무상 대여 '호평'

전북우정청, 우체국 공적역할 수행 일환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임정규)은 우체국 공적역할 수행의 일환으로 전주지역 치매환자, 인지저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대여사업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문의하는 등 수반사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에서 보급해준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고부터는 안심이 되고 대여 비용도 지원받아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임정규 전북 지방우정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를 지원해줘 더욱 뜻깊고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체국 공적역할 수행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의 착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고리형으로 보급되며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자는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특히 배회감지기 대여수수료(2년간)를 지원해줌으로 보호자들은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이정규 전북 지방우정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를 지원해줘 더욱 뜻깊고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체국 공적역할 수행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의 착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고리형으로 보급되며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자는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특히 배회감지기 대여수수료(2년간)를 지원해줌으로 보호자들은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최근 전주지역 모경철서에서 112 실종 접수된 치매 어르신을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우체국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해 주었다. 치매 어르신 보호자인 김 모 씨는 "제가 밖에 나가면 치매 초기인 할머니가 혼자 걸릴 때 늘 불안했는데, 우체국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 논의

민주·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진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장 ▲강동한 한국인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병재 한국포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장 ▲김양록 호남제철근로자대표연합회장 등

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외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내전북본부, 보호종로

아동 주거환경개선 지원

내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전라북도 사회복지협회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보호종로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내전북지역본부에서 영세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및 자립지원을 위해 조성한 사회적경제 플랫폼 입주기업인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대표 양홍철)와 내전북지역본부에서 마련한 후원금 1000만원을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LH 임대주택에 갖추어져있는 냉방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 외에 생활에 필요한 개인 소모품인 침구류, 소형가전 등의 지원에 활용돼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립준비 청년 50여 명의 삶의 질 개선에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 창업 해커톤 과정 신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식품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농식품 창업 해커톤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글로벌 팬데믹 이후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와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농식품 분야 창업을 장려하고,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 농식품 창업컨테스트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에 도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사업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과정은 25일과 28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시 소재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해커톤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통·창업 전문가 2인이 전담해 교육생들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R&B표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du.a.or.kr)를 통해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 무주 구천동농협 사인머스켓 재배농가를 찾아 수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수출농가 애로, 현장서 해결

전북농협,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 무주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 사인머스켓 재배농가를 찾아 수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수출 현장컨설팅에서는 무주 사인머스켓을 고품질로 키우기 위해 알숙이 지배된 처리 기술 및 병해충 예방 등에 대해 (주)한스인텍 권태영 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수출현장컨설팅은 전북농협과 전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

업으로 사과, 사인머스켓에 대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북 관내에서 수출관련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기술, 수출클레임 해소방법, 수확 후 관리, 저장방법 등 수출농가에게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과외 현장에서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로 피드백하며 문제해결식으로 총 12회 진행하게 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수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전북도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임미철근(一米斤)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 영농차량 무상점검 '큰 호응'

전북농협-회현농협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회현농협(조합장 김기동)은 최근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업인 영농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농철 안전사고 예방을 물론 차량 운영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자동차의 협조로 정비기사 3명이 승용,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총 100여 대의 차량이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았다. 또한 각종 소모품 교환도 함께 이뤄져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기동 조합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회현농협을 믿고 찾아오



시는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영농 편의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한편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차량 무상점검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 실익증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식품제조 예비창업자 모집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진흥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용차 산업 등 지역 고용유기 산업에서 발생한 실업인력 및 예비인력에게 식품산업으로의 전

직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에서는 지역의 고용유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반산업이자 성장산업인 식품산업의 소상공인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창업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소상공인 식품제조 창업아카데미는 산업단체별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 및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고, 위기근로자들이 식품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 및 초기사업비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예비창업자 모집은 5월 말까지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